

#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꾸준한 수익 올리는 경기 양주 “이레농장”

취재 : 정재은

**지**속적인 사료 값 인상 등으로 많은 양돈농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레농장(대표 이재경, 47세)은 사료비를 감소시키기보다는 20년 동안 사용해 온 고품질 사료를 돼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줌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를 하고, 돼지를 항상 정성스럽게 돌보기 때문에 연중 내내 질병을 모르고 지내고 있다. 결국 이레농장의 경우 폐사율이 매우 낮으며, 잘 키운 돼지를 많이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올려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 이레농장 현황 및 돈사구성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이레농장의 이재경 대표는 양주 출신으로 83년 모돈 1두로 양돈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87년에 모돈 30두로

규모를 늘렸다. 96년에 1,000두의 전업규모 수준의 농장을 경영하게 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현재의 규모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모돈 190두, 전체사육두수 2,000~2,100두 규모의 일반 비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경 대표와 직원 2명이 농장 일을 성실하고 착실하게 해오고 있다. 이레농장의 돈사는 모돈사(임신사 포함) 1동, 분만사 1동, 초기자돈사 1동, 자돈사 1동, 육성사·비육사 2동으로 구성(720평 규모)되어 있다. 또한 스크레파 돈사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분뇨는 톱밥으로 퇴비화 처리와 함께 발효처리를 한 액비를 직접 경종농가에 살포하고 있다.

20년 동안 일정하게 고품질 사료를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을

이재경 대표는 자신이 설정한 방향으로 주

이레농장은 돼지 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료(영양), 물, 온도·습도, 환기, 청결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사료 값 인상 등의 악재가 있더라도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아울러 경영관리 측면에서 수익결정을 생산비 감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총 투자 대비 매출액과 연관을 짓고 있다. 고품질 사료를 많이 먹여 질병 발생률과 폐사율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매월 일정량을 출하함으로써 수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다.

관을 갖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고품질 사료 급여와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로 잘 키운 돼지를 최대한 많이 출하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절대 싼 사료를 구매하지 않으며, 20년 동안 일정하게 고품질 사료를 돼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줌으로써 질병 발생을 차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재경 대표는 “폐사율 0%에 도전하고 있으며, 좋은 것을 먹여, 잘 키우고, 잘 파는 것이 최고다.”라며, “가격이 저렴한 사료를 찾아 바꾸기보다는 일정한 사료급여 체계를 가지고 변함 없이 출하하는 것이 수익향상의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 자연종부 1회 실시 및 모든 단계별 사양프로그램 적용

이레농장은 자연종부 1회로 교배를 시키고 있다. 교배율이 좋으며, 재발 역시 높지 않고 산자수도 보장되어 있다. 그만큼 모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으며, 모든의 BCS(Body Condition Score)가 좋다.

또한 모든 단계별 사료·사양관리 프로그램의 정착화가 이루어져 있다. 종부(임신초기) 때 1.8~2.2kg 30일, 임신중기(체형유지)에 1.8~2.5kg 40일, 모돈유선발육을 위해 1.8~2.5kg 20일, 임신말기(돈아먹이기)에 3.0~3.5kg 20일, 분만 5일전(사료 줄여 먹이기)부터 3.5kg에서 일일 500g씩 감축하여 급여하고 있다.

모든 현황판에 암컷과 수컷의 품종 현황, 산차수, 종부날짜, 재발 확인날짜, 분만일, 분



▲ 이레농장의 이재경 대표(가운데)와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제13지역 서정용 양돈 판매부장(우측), 서비스팀 김경일 총무(좌측)



만두수, 생존두수, 이유일 등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분만사에서는 철분 및 비강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적용해 나감으로써 돼지 생산의 근간이 되는 모든 관리를 제대로 해나가고 있다.

### 세심한 이유자돈 관리로 70일령 체중 36.5kg 유지

이레농장은 초기자돈사와 자돈사가 따로 구분되어 단계별로 세밀한 사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계간 환경을 단절시켜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결국 폐사율과 질병발생률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경 대표는 "어릴 때 잘 크는 것이 커서도 잘 크다는 생각으로 초기성장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70일령 체중이 높으면 돼지가 건강함을 뜻하며, 이는 폐사율 감소와 출하일령 단축, 돈사 회전율 증가와 매출액 증대로 이어져 농장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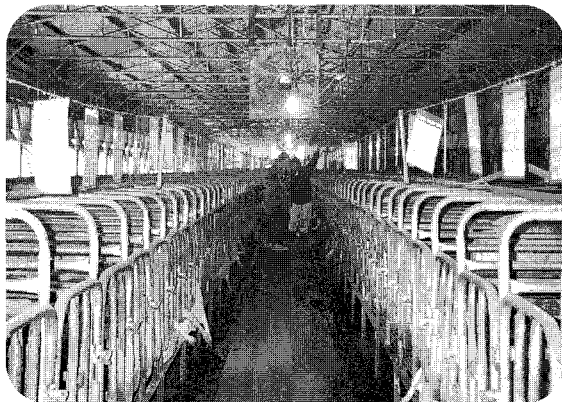
이레농장의 경우 작년 70일

령 체중이 평균 36.5kg으로 나타났으며, 국내평균 25kg에 비하면 매우 높은 성적이다. 고품질의 우수한 사료를 장기간 이용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하고, 면역력 및 환경 적응력 강화가 이루어져 질병 발생이 거의 없게 되었다. 결국 약품비용의 경우에는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높은 생산성과 매월 일정량 출하로 수익 보장

이레농장의 모든 회전율은 23 정도 이고, 산자수는 최소 12두 이상, 복당 이유두수는 10~10.5두 정도이다. 또한 PSY 23두, MSY 21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모든 175두 기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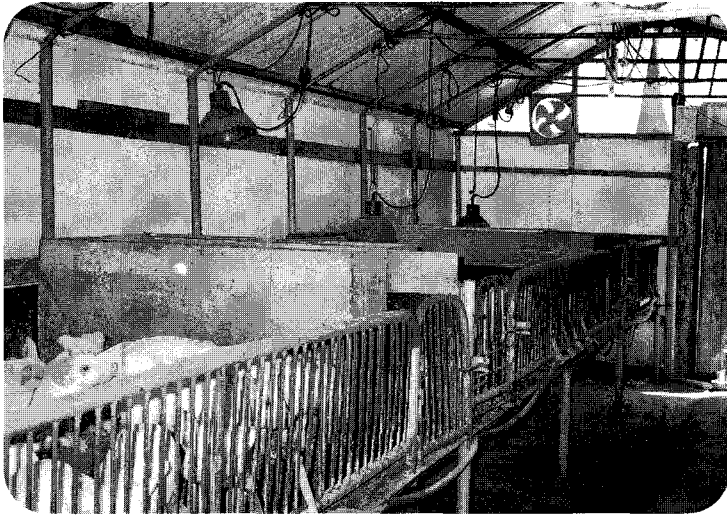
▲ 이레농장 모돈사 내부 모습. 이재경 대표는 모든 현황판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모든 단계별 사양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임신진단·모돈관리 뿐만 아니라 각종 사양·환경관리 컨설팅을 받고 있다.



▲ 분만사 모습. 분만사에서는 철분 및 비강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

월 출하두수는 320두 수준이었으며, 출하일령 165일에 출하체중이 평균 115kg이었다.

이레농장은 질병 발생이 거의 없고 매월 일정량의 출하를 통해 돼지를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등 돈가가 좋은 시기에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국내평균에 비해 비육돈 출하일령 단축과



▲ 초기자돈사 모습. 적정 온도와 습도 수준을 맞추어 좁으로써 돼지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질병을 차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높은 출하체중을 통해 좋은 출하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경 대표는 '이유자돈 관리가 비육돈 출하성적을 좌우한다.'는 신념을 갖고 이 이유자돈에서부터 세심한 관리를 하여 높은 출하성적을 유지하여 수익을 보장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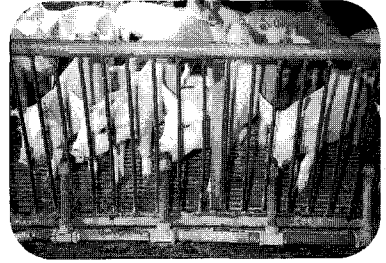
### 철저한 물, 사료, 온도·습도, 환기, 청결 관리

양주지역은 공기가 깨끗하며, 청정 1급수의 지하수가 공급되어 양돈을 하는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이 레농장은 가능한 빨리 분뇨를 치우고, 피트 배기팬을 통해

유독한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등 돈사 안의 공기를 개선하여 돼지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질병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적정 수의 니뿔이 설치되어 원활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료 허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이 주의를 하고 있다. 사료요구율은 29~30 수준으로 국내평균 35에 비하여 좋은 편이다. 이 레농장의 경우에는 질 좋은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여 면역력 강화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적정 온도와 습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이 돈사 안의 온도와 습도 체크를



▲ (초기자돈사) 적정 수의 니뿔이 설치되어 돼지들에게 원활한 물 공급을 해주고 있다.



▲ (초기자돈사) 사료를 먹고 있는 어린 자돈의 모습. 질 좋은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여 면역력 강화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자주 하고 있다. 돼지의 일령, 크기와 무게에 따라 적정 온도 구간내로 유지되도록 애쓰고 있으며, 체중이 작은 돼지들은 조금 더 따뜻한 온도에, 체중이 큰 돼지들은 조금 더 시원한 온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 자돈사 모습. 자돈사는 23°C 전후에 맞추고 있으며, 보온등을 켜 놓고 있지만 낮에는 끄는 등 일교차 조절을 하고 있다.

신경 쓰고 있다. 분만사는 18~20°C의 온도로 유지하고 있으며, 자돈사는 23°C 전후에 맞추고 있으며, 보온등을 켜 놓고 있지만 낮에는 끄는 등 일교차 조절을 하고 있다.

적절한 환기를 통해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상대 습도 수준을 50%에서 80% 사이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겨울에는 65%, 여름에는 75%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세균과 바이러스의 성장을 줄임으로써 질병을 차단하고, 먼지 감소와 호흡 환경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그밖에 환풍기와 단열재, 입기구 조절장치의 적절한 활용으로 돼지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각종 환기시설·환경 관리로 돼지의 사료섭취량을 높이고, 면역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한편 출입구에서 차량 및 사람 등 출입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1주일에 2번

이상의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분만사와 초기 자돈사의 경우에는 수세를 통해 청결관리를 꼼꼼히 하고 있다.

### 돼지 1마리를 세심하게 신경 쓰는 자세 유지해야

이재경 대표는 “돼지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으므로 죽는 돼지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며, 아픈 자돈을 1마리라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세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다발적인 질병 발생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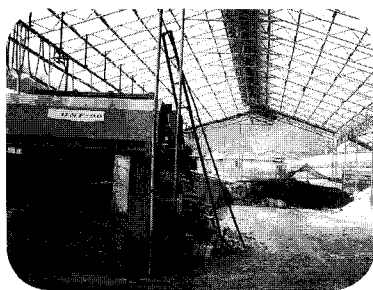
이재경 대표는 “양돈을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평생사업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실이 튼튼한



▲ 비육돈 모습. 매일 일정량의 출하를 통해 돼지를 안정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있다.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육두수를 늘리기보다는 돈방 규모에 맞는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며, 지금까지처럼 일정한 고품질 사료급여와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로 돼지를 잘 키워내고, 많이 출하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레농장은 돼지 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료(영양), 물, 온도·습도, 환기, 청결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사료 값 인상 등의 악재가 있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아울러 경영관리 측면에서 수익결정을 생산비 감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총 투자 대비 매출액과 연관을 짓고 있다. 좋은 사료를 많이 먹여 질병 발생률과 폐사율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매일 일정량을 출하함으로써 수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다. **양돈**



▲ 이레농장에서는 분뇨를 퇴비화로 처리하고 있다.



▲ 액비탱크 모습. 분뇨중 일부는 발효 처리로 액비화 하였으며, 경중농가에 액비를 직접 살포하고 있다.